

한국, 무역순위 13위

93년 12위서 떨어져 … 싱가포르 12위로 부상

우리나라는 94년 수출입이 모두 높은 신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순위는 93년의 12위에서 13위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WTO(세계무역기구)조사자료에 따르면 94년 한국은 무역액이 총 1980억달러로 93년에 비해 310억 달러 늘어났다.

자료) WTO

주요국의 무역순위		(단위 : 억달러, %)					
구	분	1993			1994		
		수출입총액	비 중	순위	수출입총액	비 중	순위
미	국	10,690	14.2	1	11,940	11.4	1
독	일	7,230	9.6	2	7,850	7.5	2
일	본	6,020	8.0	3	6,700	6.4	3
프	랑	4,110	5.4	4	4,540	4.4	4
영	국	3,850	5.2	5	4,170	4.0	5
이	태	3,360	4.2	6	3,680	3.5	6
홍	콩	2,740	3.6	8	3,140	3.0	7
캐	나	2,840	3.7	7	3,040	2.9	8
네	덜	2,660	3.3	9	2,800	2.7	9
벨기에	룩셈부르크	2,300	3.0	10	2,490	2.4	10
중	국	1,960	2.6	11	2,367	2.3	11
싱	가	1,590	2.1	14	1,990	1.9	12
한	국	1,670	2.2	12	1,980	1.9	13
대	만	1,620	2.2	13	1,750	1.7	14
스	페	1,450	1.9	15	1,720	1.6	15

그러나 싱가포르도 93년보다 400억달러 증가한 1990억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한국의 세계무역순위는 93년의 12위에서 13위로 떨어진데 비해 싱가폴은 14위에서 12위로 부상했다.

주요국별 순위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가 1~ 6위를 차지, 93년과 순위변동이 없었으나 홍콩은 처음으로 3000억달러를 돌파, 캐나다를 제치고 7위로 부상했다.

중국은 11위로 변동이 없었고 대만은 싱가포르의 부상으로 93년 13위에서 14위로 밀려났다.

무역증가율은 싱가포르가 25.3% 증가, 가장 높은 신장세를 기록했고 중국이 20.9%, 한국과 스페인이 각각 18.6%, 홍콩이

14.6%를 기록했다.

수출증가율은 중국이 31.9%로 1위, 싱가폴은 30%를 기록했다.

<화학저널 1995/3/13>